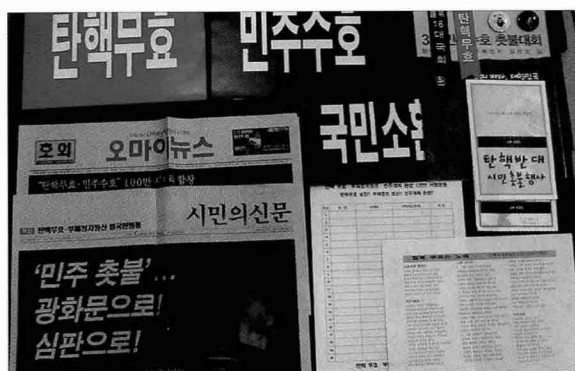




# 탄핵정국 인쇄물 얼마? 집회 · 인쇄 수요 ‘정비레’

제16대 국회 회기가 거의 끝나가고 제17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 12일, 급작스럽게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인쇄업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. 여기에는 예상치 않게 강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른 반사행동으로 약 보름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거리를 달궜던 촛불집회가 가장 큰 매개체 역할을 했다.

모든 집회는 각종의 인쇄물을 마구 토해낸다. 그렇기 때문에 집회가 커지고 횟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집회에 소요되는 인쇄물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. 그 관계는 대체로 정비례한다고 보면 맞다. 탄핵정국과 맞물리며 전국 970여개 시민단체가 한시적으로 결성한 ‘탄핵무효·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(이하 범국민행동)’은 3월13일 전국집회를 시작으로 탄핵정국의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했다. 범



범국민행동 등에서 발행한 각종 호의신문들과 소책자 등 인쇄물들

국민행동은 보름 동안의 평일 집회와 3월20일의 100만인 대회, 3월27일의 촛불문화제 등을 거치며 전국의 거리에서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.

범국민행동, 6종의 인쇄물 제작  
약 15일간 전국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등장한 각종 인쇄물 생산액을

범국민행동 관계자와 인쇄 전문가의 도움으로 추정해 보았다.

범국민행동은 촛불집회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던 25.6×18.7cm 크기 250g/㎡ 스노우화이트 아르지 양면에 빨간 바탕 흰 글씨, 보라바탕 흰 글씨로 구호를 새긴 카드인쇄물을 100만부 이상 인쇄, 보급했다. 이를 인쇄 전문가의 도움으로 금액으로 산정해 본 결과, 이



## 촛불집회서 각종 카드인쇄물·소책자·신문 등 배포 각종 탄핵관련집회서 1억원이상 신규수요 발생

카드의 총 인쇄금액은 약 1430만원의 용지대금, 126만원의 출력교정, 밀착, 첩입, 인쇄판, 인쇄, 재단 등의 제작비용과 156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더할 경우 약 1720만원에 달했다.

또한 집회 때 불러지는 노래들을 참가자들에게 배부한 모조 80g/㎡ 195×270mm 크기 유인물(약 30만부)의 인쇄금액이 약 250만원이었고 국모조 80g/㎡ 210×297mm 크기 1천만 서명운동용지(약 30만부)의 인쇄금액은 약 290만원이었다. 아울러 3월27일 서울 종로에서 개최된 촛불문화제 행사에서 배부된 서적지 80g/㎡ 2036×297mm 크기 2회 접지 유인물(약 20만부)의 인쇄금액은 약 970만원이었다.

이를 합한 3230만원 규모의 인쇄물이 범국민행동이 집행한 총 종이인쇄물량이다. 이 외에도 범국민행동은 민주수호와 탄핵무효라는 구호를 새긴 직경 3.2cm의 철제버튼을 각각 2만개 만들었으며 역시 같은 구호가 새긴 형질리본도 다량 제작, 배포했다.

각종 단체서도 인쇄물 제작  
범국민행동이 직접 제작을 담당한 인

쇄물 이외에도 촛불집회에는 다양한 인쇄물들이 많이 출현했다.

탄핵을 반대하는 출판인들의 모임에서 3월20일과 27일에 약 30만부 정도 보급한, 미색모조 80g/㎡ 120×275mm 각 1도 중철 접지로 제작한 16페이지의 노래 소책자는 약 1070만원 정도의 인쇄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.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문에서 신문용지 2절지의 호외 신문을 인쇄해 범국민행동을 통해 촛불집회에 배부했고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 등도 호외를 발간했다. 30만 부 이상 제작, 보급했다고 가정할 때 이들 호외신문은 적게는 1290만원에서 많게는 1530만원 정도의 인쇄비용을 필요로 한다. 위에서 열거한 노래 소책자와 호외 신문의 인쇄금액을 합하면 약 5420만원에 이른다.

이에 범국민행동에서 직접 관리, 배포한 3230만원 규모의 인쇄물량과 외부에서 제작한 약 5420만원 정도의 인쇄물을 합한 총 8750만원 규모의 인쇄물이 촛불집회를 통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. 이는 비교적 다량 인쇄, 배포된 물량으로 추정 가능한 인쇄물들을 합산한 결과다.

전국에서 약 1억원 인쇄

이 외에도 국회소환, 국민발의를 탄핵무효 카드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배포한 단체가 있었으며 디지털카메라 인터넷 동호회인 DC인사이드에서도 투표를 독려하는 스티커를 제작, 배포하는 등 각 단체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들도 상당수 있었다.

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에 비해 적은 규모로 진행됐지만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집회에서도 각종 인쇄물들이 배포됐다. 그렇다면 추적 가능한 8750만원의 인쇄물량 말고도 각 단체를 통해 배부된 인쇄물까지 합할 경우에는 탄핵정국 속에 약 1억원 이상의 인쇄물이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.

전체 인쇄업 규모를 놓고 볼 때 보름 동안 발생한 1억원 정도의 생산 유발효과와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할 수 없다. 그러나 비교적 비수기로 분류되는 3월에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탄핵정국이 인쇄업계에도 적지 않은 흔적을 남겼음을 알 수 있다.

〈조갑준 기자〉